

제자 (마태복음 28:16-20)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네 번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이다. 4복음서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항상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 오늘 제자라는 중심단어를 가지고 마태복음에서 주신 말씀이다. 제자는 세계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깨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중요한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귀중한 시간 되기 바란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 아주 곤란한 때도 있다.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되는 때도 있다. 때로는 갑자기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전부 언약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렇다. 언약이 완전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완전하면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언약으로 문제를 정복했다는 것이다. 언약으로는 언제든지 문제에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고 부족해도 언약으로 살면 응답이 쌓이게 되어 있다. 꼭 완전해야 된단든지, 잘해야 된단든지 하는 말씀은 성경에 없다.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하라고 하신다. 언약으로 살고 있으면 부족해도 응답이 쌓이게 되어 있다. 일정수준 응답이 쌓이면 아무리 바보여도 언약으로 답이 나게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답 나신 사람도 있고 평생 그 답이 한번도 변치 않고 의심 한번 안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언약으로 살면서 차츰차츰 답이 난다. 많은 갈등과 고난과 과정을 거치면서 답이 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 있었던 것이다. 40년동안 보고 배우고 치유받고 바뀌면서 계속 준비되어 간 것이다. 우리도 이런 과정을 살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칠 수 있다. 만약 안 고치고 있다면 무엇인가를 준비시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마 복음 안에 들어와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기도해서 응답 받은 사람들은 인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언약해서 똑같은 문제를 또 당해도 예전처럼 불안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사실은 그 때도 기도하면 그것이 또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맨날 바뀌고 맨날 죄짓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이 변하지 않는다.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응답을 변함없이 주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영적으로 계속 발전해간다는 것이다. 영적으로 발전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답이 더 깊이 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것만큼 더 정복하고 세계가 더 넓어진다. 똑같은 하루를 지내도 영적인 것이 발전되면 인생이 더 깊어지게 되어 있다.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안타깝지만 또 하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발전은 평생을 두고 계속 될 것이다. 왜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함, 죄는 안 보기로 작정하셨다. 오직 우리를 발전시켜서 세계복음화 증진되고 사람을 하나라도 더 살리려는 목적 외에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는 중에 계속 더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가 더 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에 답이 나면 내 언약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근본 그리스도 언약과 그 안에서 내 개인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다. 나의 언약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내게 주신 언약을 바탕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 근본언약과 내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영적전쟁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언약으로 사람 살리고, 제자를 찾는 것이다. 이 언약으로 조직전도를 하고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다.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 RT7이 다 이렇게 살았다.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내 시대이다. 우리는 내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이 내 언약이 되어야 한다. 한나가 어느 날 그 시대의 언약을 깨달았다. 요게벳은 자식의 생명을 걸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적 결단을 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였다. 당대의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그 자리에서 바로 바꿔버렸다. 당연히 이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다 안다. 우리는 그리스도

다 안다. 그 다음에는 내 언약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향하여 내 인생을 바꿔야 한다. 기생 라합 생각하면서 순간적으로 바꿔야 한다. 착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보다도 험한 인생을 산 사람이 이런 일을 더 잘 한다. 착하게 산 사람은 겁이 나서 잘 못 바꾼다. 험한 인생을 산 사람은 바꾸나 안 바꾸나 같기 때문에 오히려 험한 인생이 축복인 것이다. 고난이 더 축복이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고 망할 것도 없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는다.

그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다. 승리하고 축복을 받았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한다. 복이 없으면 못 산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다. 너도 이렇게 하면 똑같이 너도 승리하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복을 줄것이라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 복을 전달해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사람을 하나 못 살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1. 제자

이런 의미에서 제자가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중에 첫 번째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세우라고 하셨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세워서 이 일을 세상 끝날까지 계속 하라고 하셨다. 내가 이 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부활메세지는 구원받고 제자 된 사람이 이제는 뭐하며 살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전부 4복음서의 결론으로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마지막이고 중심 단어가 제자이다.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에는 치유하라고 되어 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에는 내 어린양을 먹이라, 램넛트 운동하라고 되어 있다. 누가복음의 결론은 사도행전 1:8절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셨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결론은 전도하고 선교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답은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전도까지 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전달해서 사람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중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찾아라. 이런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는 바울이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는 어느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알자마자 사명 받은 것이다. 사흘간 눈을 뜨지 못했는데 뜨자마자 바로 증인이 되었다. 예수님은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그 다음날 바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야였다고 말하였다. 사도바울의 메세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세시대의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시대의 언약, 이방인, 세계 복음화이다. 237, 서밋, 세계복음화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오늘 본문은 모든 민족이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들에게 가서 제자를 세우라는 것이다. 언약을 잡고 가면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실 것이다.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몇마디 안해도 바로 일어설 것이다. 사도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복음 전하기 시작했는데 3주만에 사역 끝내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 참 놀랍다. 우리도 근본 언약 그리스도와 함께 내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이 내 언약이 되면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는다.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 눈 뜨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제자는 적어도 복음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전략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성경 알아야 한다. 그런데 보통 복음 알고 거의 끝내버렸다. 복음만 해도 아주 광범위 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전도는 거의 복음 전도였다. 우리가 만약 전략을 아는 전도자였으면 조직이 컸을 것이다. 전략이 없는 전도는 전도가 아닌 것이다. 만일 평신도 제자가 성경을 아는 전도를 했으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같은 전도 했을 것이다. 아볼로는 목사였다. 목사에게 가서 성경(구약)을 가지고 복음을 말할수 있는 평신도였다. 전략전도여도 가서 나누는 내용을 복음이다. 그러나 전략을 알면

복음만 아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한다. 14권 교재는 전략에 관한 것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복음 내용이 있지만 전략이 함께 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이 내 언약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팀 사역 전도라든지 조직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만일 이 시대에 언약이 내 언약이 되면 내 인생이 작품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제자는 왜 제자가 필요한지 눈이 열려야 한다.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제자가 아니면 안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바뀌어야 하면 제자 없으면 전도 안된다는 것이다. 1대1전도는 될 것이다. 그러나 조직이 형성된 사도바울식 전도는 안된다. 제자도 없는데 어떻게 그 지역을 정복하는가? 제자 없는 전도는 평생 헛것이다. 응답도 쌓여야 한다. 전도도 쌓여야 한다. 그래야 계속 다음 전도를 할 수 있다. 내게 파송을 할 수 있는 제자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 대신에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을 묶어서도 보내고.. 보고 받을 때 거기에 문제를 알기 때문에 메시지도 보내고, 사도바울은 거기에 메시지 보냈다. 이것이 성경의 전도이다. 그것을 한 단어 안에 다 담아 뉘었다. 그것이 제자이다.

그 눈 열리면 오늘 본문이 대단한 이야기가 되어진다. 전도는 노력이 아니다. 너무 힘이 들고 짐에 누릴 것은 전도 아니다. 누림이고 권세이고 정복이다. 축복이다. 이런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제자 있어야 한다. 내 혼자서는 늘 모자란다. 제자가 필요한 이유에 눈이 열려야 한다. 제자 없이는 조직이 서지 않는다. 조직이 안되면 지역을 살리거나 세계복음화가 불가능하다. 대를 이어서 이 운동을 해야겠다? 절대 안된다. 나 혼자서 아름답게 전도하다 죽었다면 제자 필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름답고 우아한 전도 아니다. 오히려 전쟁이다. 사단과 싸우는 전쟁전도이다. 우리는 이런 제자를 키우는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 사람을 키우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물론 어렵지 않다. 그리스도면 된다는 답이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 있으면 응답된다는 답이 있으면 된다. 사람들은 응답이 필요하다. 제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면 응답되고 인생에 답 난다는 답이 있으면 된다. 영적문제 많다. 그리스도면 이 사단 무너진다는 답이 있으면 제자 세울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을 정복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증인이다. 그리스도면 된다는 증인이다. 우리는 사람 붙여지면 양육해야 한다. 무엇으로 양육하나? 이것으로 양육한다. 이것으로 하지 않는 양육은 필요없다. 이 양육을 지속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조직이 형성되게 되어 있다. 조직이 형성되면 다음이 무엇을 해야 할까 금방 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제자이다. 제자는 이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붙여주실 것이다. 제자는 내게 와 있는 사람중에 이런 제자가 있는지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그 눈은 곧 내용, 콘텐츠이다.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구별할수 있는가? 물어봐서는 모른다. 메시지 해보면 안다. 메시지가 바르면 사람이 정리가 된다. 그래서 바르게 메시지를 하는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이 중대한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실줄 믿는다. 그래서 더 깊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깊은 묵상기도, 고백이 있기를 바란다. 단발성 응답도 귀하고 감사하다. 그러나 응답이 지속되고 전도와 선교의 문에 계속 열려야 한다. 이런 축복이 있어야 받은 응답도 빛을 발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 것이 인생 작품이다. 제자라는 이 단어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한주간이 되기 바란다.

2. 뜻을 정한 사람들

우리도 뜻을 정해야 한다. 단 1:8절은 대표적인 말씀이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포도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이 고기, 포도주 먹지 않고 채식만 해도 내 얼굴이 좋아지는지 아닌지 보라고 했다. 다니엘 뿐 아니라 뜻을 정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다. 엘리사도 갑절의 영감으로 뜻을 정했다. 선배 엘리사가 나를 이 축복하기 전에 결심하고 뜻을 정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한나도 그랬다. 어느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리고 마음에 정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아들을 주

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뜻을 정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겼다. 나중에 3남 2녀 더 낳았다. 이삭도 뜻을 정했다. 나는 싸우지 않는다. 오직 언약으로 끝낸다. 뜻을 정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를 들면 많다. 룻도 뜻을 정했다.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했다.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우리가 안다. 우리도 뜻을 정해야 한다. 그리스도에게 생명 걸어야 한다. 뜻을 정해야 한다. 세계 복음화에 평생을 걸겠다 뜻을 정해야 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다. 혹시 마음속에 제발 이것을 해라 이런 마음이 있었을수도 있다. 그러면 사단 역사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영적 문제 해결하고 응답받으려는 의도 이전에 이걸해라. 여기에 응답이 들어있다는 의미이다.

마태복음 6:33이 같은 이야기이다. 응답을 말할 필요 없이 응답이 안에 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된다. 왜냐면 사단의 역사이고 영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전쟁을 매일 해야 한다. 반드시 사단은 무너지고 우리는 정복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완전 종이 될 것이다. 기도도 그냥 주세요가 아니라 완전기도 하는 것이다. 치유도 마찬가지다. 완전 치유될 것이다. 증인도 완전증인, 양다리 걸친 증인이 아니라 완전증이 된다. 그러면 완전 축복 올 것이다.

이 놀라운 세계 복음화를 두고 구체적인 길을 제시한 것이 부활 메시지이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자이다. 부활메시지 중에 제일 먼저 너는 제자를 세워라. 예수님도 사역할 때 그랬다. 제일 먼저 제자를 먼저 불렀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같이 살았다. 같이 살면 모든 것이 전달되는 것이다. 우리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면 된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부활 메시지를 요약한 것이 237, 치유, 서밋이다. 우리는 여기에 뜻을 정해야 한다. 양다리 걸치면 안된다.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일의 종류와 상관 없이 그 안에서 전도 선교 일어나면 된다. 내 업이 중요하지만 이것도 세계복음화를 위한 방편일 뿐이다. 부업이다. 그래서 내 업이 주업이 되어 있다면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것이다.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는 영적 전쟁터이다. 오늘 예수님은 중요한 약속을 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이 말이 그냥 말로 들리지 않고 언약으로 들리기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메시지 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을 보았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제자이다. 이 제자의 중요성과 필연성, 절대성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제자를 세워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뜻을 정해야 한다. 이것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영적인 것이 그게 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육신적인 것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할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영적인 것은 정말로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도 뜻을 정해야 한다. 우리도 제자를 세워야 한다. 깊은 기도도 해야 한다. 정말 그리스도 언약 되어야 한다. 고백을 하면 정말 역사 일어나고 흑암 무너져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것은 내 맘대로 안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줬다. 그것이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계속 언약으로 더 깊이 누려야 한다. 언약으로 누려지지 않아도 된다.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잡는 것도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다. 손으로 잡으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마음으로 잡는 것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내 맘대로 할수 있는게 있는데 그것이 고백이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적이 되는것도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나 지속하면 깊어지고 발전된다. 그리고 이 고백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세계 복음화 하게 된다. 미국 앞에 서고, 그냥 남미 가는게 아니라 남미 끝까지 가는 것이다. 그냥 입으로만 렘넌트 운동이 아니라 진짜 하는 것이다. 다민족도 그냥 다민족이 아니라 올인하는 것이다. 말만 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것은 소용없다. 완전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은혜 받으니까. 이번 주간에 제자라는 단어 주셨는데 한번 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언약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러나 전도까지 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